

험벗고 지친 영혼의 안식처

강말실 | 사계절출판사 대표

요즘 종종 핸드폰을 끄고 산다. 그래도 불편한 것 하나 없다. 절박한 사연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든 연락이 오간다. 누군가와 의 소통에 대한 절박함으로 요즘 나는 도스토예프스키를 다시 읽고 있다. “...다름아니라 두루 존경받고 있으며 재능 있는 스페인 프로피모비치 베르호벤스키에 대한 몇 가지 전기적인 세부 사항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을 수 없다...” 《악령》!! 전자책 준비가 한창인 이때 러시아어 원역본으로 도스토예프스키 전집을 낸 열린책들의 홍지웅 사장은 소통에 대한 어떤 절박함에서 이 책들을 출간했을까?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이 시작되자 어머니는 내게 《카라마조프씨네 형제들》을 읽어달라 하셨다. 매일 밤 낭랑한 나의 목소리로 그 지루하기 짝이 없던 얘기를 들으면서 어머니는 감동과 긍정으로 가득찬 묘한 신음소리를 내곤 하셨는데, 그 소리는 나에게 겨울방학 내내 건조하기 짝이 없는 얘기를 어머니에게 들려드려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게 했다. 어머니도 그때 어떤 절박함이 있었던 건 아닐까?

책을 읽는 목적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내게 책은 의사소통에 대한 절박함에 빠져 있을 때 피신해 들어가는 은신처다. 《아리랑》을 한달 내내 손에서 떼지 못하고 밑줄 그어가며 읽어내려 갔던

그때도 난 절박같은 의사소통의 단절감에 신음하고 있었다. 《혼불》을 읽을 때도, 벽초의 《임궏정》을 세번씩이나 읽었을 때도 그랬다. 책 만드는 일이 직업이라, 하루에도 몇권씩 의무적으로 읽어내야만 하는 책들에 대해서 ‘책 읽는 즐거움’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다. 일을 하면서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쌓여 있는 일의 양이 아니라, 그 일을 풀어나가기 위해 맺어야 하는 사람들과의 서툰 관계다. 사람들과의 서툰 관계 맺기는 가끔 ‘자괴감’이라는 배설물을 남기곤 하는데, 이때 누군가와 의 소통을 절박하게 원하면서 집어드는 것이 바로 소설책이다. 그것도 읽기에 말랑말랑한 소설책들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고통과 집중력을 요하는 긴 소설들이다. 책 속의 수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교감에서 얻는 안식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 다 읽고 나면 한동안 그 지독한 자괴감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아니 더 나아가 사람과의 관계 맺기에서 한뼘쯤 성숙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요즘 이런 나의 절박함을 달래주고 있는 도스토예프스키에게 감사한다.

《총알 타기》라는 소설을 인터넷에 전자책으로 올려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스티븐 킹이 최근 《타임》지에 “(종이)책의 판매는 끝났는가”라는 제목으로 실었던 글은 인터넷 시대에도 여전히 변함 없는 책읽기의 즐거움을 얘기하고 있다.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지적 세계의 리더이트들이다. 이들이 인쇄된 책장들을 포기한다는 것은 교황이 디스코텍에서 테크노 춤을 추는 사진을 《뉴욕 포스트》에서 보는 것보다 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래된 책의 향기는 역사의 향기며, 나는 새 책을 보면서 미래를 본다... 그러므로 (인터넷 시대에도) 책은 존재할 것이다. 내 개인의 입장을 말하자면 총 없이는 살 수 있지만 제본된 책만은 죽을 때까지 손에서 놓지 않을 것이다.”

THE KOREAN PUBLISHING JOURNAL, biweekly

통권 제283호 2000년 7월 5일 발행	
발행인	김낙준
편집이사	임홍조
편집자문	김정린 이정우 임지현
편집장	이권우
기자	박천홍 최성일 김정은 최갑수
사진	김경록
편집디자인	정병규디자인 박기아
업무부장	윤동호
업무·광고	이희천 김동필 천창환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발행처	(재)한국출판공고 732-1434 · 5
인쇄처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이일수
출판저널	110 - 190 서울 중로구 신수동 105 - 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 - 1431 · 2 편집 732 - 1433 업무 · 정기구독문의
FAX	722 - 1174
E-mail	book732@chollian.net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치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택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불일하거나 국민은행 계좌번호 023-01-0219-936 (예금주:출판저널)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